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 민주 의원들 몰랐나 묵인했나

5·18 추모곡 공모 예산 정무위 합의 통과 소속 의원들 "상정 몰라"...뒤늦게 정부 비난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광주일보 25일자 6면)이 국회의 부실한 예산안 심사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뿐 아니라 '386' 의원들, 지역구인 호남지역 의원들조차 수 차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2면>

28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를 거쳐 5·18 추모곡 공모 예산(4800만원)이 담긴 국가보훈처 예산안(2013년도)을 통과시켰다.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5·18 민주화운동 기념 노래 제작 예산 4800만원은 지난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해 부를 5·18 추모곡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국가보훈처 입장이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움직임에 반대하며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스스로 5·18 추모

곡 제작을 공식적으로 허락해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강기정·김기식·김기춘·김영주(간사)·김영환·김병두·이상직·이종걸·정호준 의원 등 모두 9명의 민주당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전남대 삼민주(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 투쟁위) 위원장 출신인 강기정 의원은 지역구에서 열리는 5·18 33주년 기념식 행사 예산조차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김기식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도 관련 예산이 상정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심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강기정 의원은 "솔직히 관련 부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예산은 꼼꼼히 챙겼는데, 이것만 꼭 짚어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상정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털어놨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의 공모예산

책정 사실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6일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지우기"는 '역사전쟁의 일환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노래 제작 예산 4800만원은 책정돼 있으나 지난 정부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33주년 기념식에선 새로 제작되는 주제곡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식 기념노래 제작 사업은 현재 기획단계로 5월 관련단체와 관련기관, 지역민, 국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제시카 모건

내년에 열리는 제10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를 이끌 예술총감독에 영국 테이트 모던(Tate Modern) 미술관 큐레이터 제시카 모건(Jessica Morgan·여·45)이 선임됐다.

<관련기사 12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6일 오전 재단 회의실에서 제130차 이사회를 열고,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으로 제시카 모건을 임명했다.

영국 출신인 제시카 모건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미술사로 학사 학위를, 런던 커티스 미술연구소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시카고 현대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보스턴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수석 큐레이터를 거쳐 지난 2002년부터 테이트 모던 큐레이터

로 일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획기적이고 실험적인 전시를 기획해오고 있는 제시카 모건은 내년 창설 2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에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21세기의 새로운 미학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연등 활짝 핀 마이산 탐사

석가탄신일을 20여 일 앞둔 28일 전북 진안 마이산 탐사에 석가모니의 탄신을 기념하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내걸렸다. 포근한 봄날씨 속에 탐사 주변에 설치된 80여개의 대형 돌탑 사이를 신도와 관광객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강기정 사퇴...민주당권 김한길·이용섭 맞대결

姜, 배심원제 불발후 경선 포기 전격 선언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민주당 당권을 놓고 비주류의 김한길 후보와 범주류로 분류되는 이용섭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지역 후보 합동연설

회에서 "이용섭 후보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소원해본다"며 후보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당초 범주류 측의 강기정, 이용섭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배심원단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한 뒤 현장투표를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일화 진행 방식에 대해 여러 제한조

건을 제시하면서 간담회마저 불발, 단일화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진 했지만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 후보의 단일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명분과 동력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 후보의 사퇴로 '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막판 상당한 접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호남 표심과 범주류

연등의 결집이 이뤄진다면 극적인 역전승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용섭 후보는 "강 후보의 희생적 결단에 송구하고 감사드린다"며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 오늘 강기정 후보가 흘렸던 눈물을 민주당의 혁신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길 후보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혁신과 화합을 위해 주어진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 強대強...개성공단 존폐위기

오늘 최종 잔류인원 50명 철수...北 "폐쇄시 南 책임"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귀환조치에 따라 29일 우리측 인원 철수가 완료된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 중인 관리인력 등 50명 전원이 29일 오후 5시께 차량 34대를 이용,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28일 밝혔다.

마지막 귀환 인력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직원 등 관리 및 인프라 담

당 인력들이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도 귀환한다. 아직 북측의 통행 동의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의 체류인원 귀환 결정 다음날인 2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재원 126명이 1차로 귀환을 완료했다. 29일 2차 철수가 마무리되면 800~900명을 유지했던 남측 인원은 1명도 남지 않게 된다.

북한은 전날 밤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

변인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시 남측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대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당국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북한의 선택에 달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 귀환 이후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 종료(30일), 한미정상회담(5월7일) 등의 상황을 보면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추

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우리 측의 피해규모를 약 1조원으로 추산하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구상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Green Movement | Korando | 스마트한 연비 | 스마트한 선택이 나를 스마트하게 만든다 | 스마트한 당신다운 선택, 코란도C 수동모델

스마트한 연비
코란도C Chic Limited와 코란도C Beat 수동모델 스마트한 당신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17.2 km/l (연비 100.1km, 10.1km) 동급유일 1등급 연비

Smart M/T Smart Driving
M/T 수동변속기

내 마음대로 변속할 수 있어 운전이 재미있는 코란도C 수동모델의 매력, 스마트한 당신만이 누리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한 드라이빙

코란도C 새봄맞이 해피 페스티벌
EVENT 1 코란도C 새봄맞이 특별 혜택
-유류비 20만원 특별 지원
-주차비 할부(총 금액할부 수수료 포함 30% 지원) 연금 20% 지원, 연수율 10%, 5.9% (12~45개월)
-Special 할부(총 금액할부 수수료 포함 연수율 2.9% (12~60개월), 연수율 2.9% (72~96개월), 연수율 2.9% (120개월))

코란도C의 혜택을과 함께 행복한 봄날을 맞이하세요
EVENT 2 Lady Safety Package 지급 (안전벨트, 안전벨트, 충격흡수장치, 충격흡수장치)
EVENT 3 아이니비 3D 내비게이션 지급
EVENT 4 최대 120만원 보상 새차할상 프로젝트 (2003년 이후 등록차량 또는 보유차 주행거리 10만km 이상 기준)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 서광주 383-3434 / 광주광산 952-3330 / 북광주 971-0990 / 광주중앙 655-4001 동광주 515-1900
■ 전남권 : 순천 745-3666 / 순천중앙 723-7100 / 신여수 654-5522 / 목포중앙 277-8000 / 무안 454-0099 /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 나주 334-2727 / 강진 433-3100 / 해남 537-3100 / 담양 383-5811 / 장성 395-0007 / 원도 554-4545 영광 353-9500 / 고흥 835-5050 / 여천 685-4800 / 보성 852-2892 / 광양 761-8900 / 동광양 791-0071